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1973년의 핀볼(1973年のピンボール)』론\*  
-세계관을 중심으로-

김 청 균\*\*

kgsiga321@hanmail.net

〈 目 次 〉

- |                 |                       |
|-----------------|-----------------------|
| 1. 서론           | 4. 개성의 상실과 인간의 기계 부품화 |
| 2. ‘정치권력’과 ‘사랑’ | 5. 일상성(日常性)과 무(無)     |
| 3. ‘고독’과 시대 인식  | 6. 결론                 |

Key word : 권력(power), 사랑(love), 고독(solitude), 개성(personality), 일상성(allteglichkeit), 무(nothing)

## 1. 서론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작 『1973년의 핀볼(1973年のピンボール)』은 1980년 3월 잡지 군조(群像)에 발표되었고, 동년 6월에 고단사(講談社)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風の歌を聴け)』(1979)에 이은 하루키의 두 번째 발표 작품인 이 소설은 하루키의 초기 대표작의 하나이다.

이 작품에 대한 중요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이 핀볼의 비유에서 무라카미가 말하고 싶은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8893)

\*\* 연세대학교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것은 역사가 구조(규칙체계)에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 뿐 아니라, 이제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sup>라고 주장하였다. 나카무라 미하루(中村三春)는 “『1973년의 핀볼』은 상징적인 사자 장송(死者葬送)에 의한 재생을 통합적인 이미지로 하는 텍스트”<sup>2)</sup>라고 하였다.

한편,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는 “무라카미는 네즈미의 죽음의 이야기를 핀볼 머신의 탐색담(探索譚)으로 치환함으로써 말하자면, 잃어버릴 수조차 없는 20세기 후반의 비애를 유리창 너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라고 하였다. 구로코 가즈오(黒古一夫)는 “생활이 타자와의 관계, 즉 부부, 부모자식 등의 세상의 얽매임을 긍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생활을 거부하고 있는 『1973년의 핀볼』의 ‘나’는 바로 현대의 피터 팬이며, 그에게는 영구히 ‘나 자신의 장소’를 찾아내는 따위는 가능하지가 않다.”<sup>4)</sup>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바타 쇼지는 작품의 시대 배경에 주목하여 “1970년이라는 해는 말할 나위도 없이 60년대와 70년대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며 특히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風の歌を聴け)』, 『1973년의 핀볼』이라는 두 작품에서는 이 해를 경계로 해서 주인공을 포함하는 청년들이 시대를 흐르는 공기를 공유함으로써 연대할 수 있었던 시대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립하여 살아가는 시대로 이행해 갔다고 하는 감정이 진하게 표출되고 있다.”<sup>5)</sup>고 하였다.

이와 같이 『1973년의 핀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 작품의 의미를 역사, 재생, 삶의 비애, 타자(他者)와의 관련, 시대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1973년의 핀볼』 분석에 있어 중요한 논점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작품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초반에 이르는 시기를 지나는 젊은이의 삶과 시대, 그리고

- 
- 1) 柄谷行人(1999) 『村上春樹の〈風景〉-『1973年のピンボール』-』 栗坪良樹・拓植光彦編 『村上春樹スタディーズ01』 若草書房 p.117  
(이하, 일본어 문헌으로부터의 인용 시, 우리말 역은 본고 필자에 의한다.)
  - 2) 中村三春(1999) 『『風の歌を聴け』『1973年のピンボール』『羊をめぐる冒険』『ダンス・ダンス・ダンス』四部作の世界・円環の損傷と回復-』 栗坪良樹・拓植光彦編 『村上春樹スタディーズ01』 若草書房 p.200
  - 3) 加藤典洋(2006) 『村上春樹 イエローページ1』 幻冬舎文庫 p.99
  - 4) 黒古一夫(2007) 『村上春樹 「喪失」の物語から「転換」の物語へ』 勉誠出版 p.52
  - 5) 柴田勝二(2009) 『中上健次と村上春樹-〈脱六〇年代〉的世界のゆくえ』 東京外国語大学出版会 p.52

세계에 대한 인식을 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기저에 흐르는 세계관은 아직도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연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현상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 『1973년의 핀볼』을 그 세계관을 중심으로 재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 작품은 인간의 삶이 ‘무(無)’에서 ‘무’로 향하는 우주적 질서 속에 놓여 있다는 세계관으로 향하는 정신적 궤적을 보여주는 작품임을 제시하기로 한다.

## 2. ‘정치권력’과 ‘사랑’

『1973년의 핀볼』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낮선 고장의 이야기를 듣는 걸 병적으로 좋아했다.

한 때, 10년이나 지난 얘기지만, 닥치는 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붙잡고는 태어난 곳이라든가 자랐던 지역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는 유형의 사람이 극히 적은 시절이었던 듯, 모두들 친절히 그리고 열심히 이야기해 주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디선가 내 소문을 듣고서 일부러 이야기하러 찾아오기까지 했다.<sup>6)</sup>

상기 인용은 『1973년의 핀볼』의 맨 앞에 위치하는 「1969-1973」이라는 장(章)의 모두(冒頭) 부분으로 내레이터 ‘나’가 파악한 10년 전의 세대의 일면이 드러나는 바, 작품 전체의 진행 방향에 시사하는 점이 큰 부분으로 생각된다.

내레이터 ‘나’는 「1969-1973」이라는 장에서 이 시기에 이야기를 나눈 상대 중 한 명으로 ‘토성에서 태어난 이’를 들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도 시기 추정이 가능하다. ‘나’는 “내가 이야기한 상대 중에는 토성에서 태어난 이와 금성에서 태어난 이가 한 명 씩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었다.”(p.5)라고 한다. 그리고 이 중 ‘토성에서 태어난 이’에 대하여는 “그는 어느 정치적인

6)村上春樹(1980)『1973年のピンボール』講談社 p.3

(본고에서 텍스트 인용은 상기의 講談社刊 村上春樹(1980)『1973年のピンボール』에 따르며, 이하 텍스트로부터의 인용 시, 본문에 쪽수만을 표기한다.)

그룹에 속해 있었으며, 그 그룹은 대학교의 9호관을 점거하고 있었다.”(p.5)라고 한다. 이는 ‘토성에서 태어난 이’가 학생운동의 일원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토성에서 태어난 이’와 ‘나’가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한 시기는 일본에서 과격한 학생운동이 전개되었던 1968년에서 1969년에 이르는 어느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기 인용에서 ‘나’가 말하는 10년 전이란 1968, 9년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1973년의 편발』의 모두의 문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이 모두의 문장이 가지는 포인트는 1960년대 말의 일본 사회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드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60년대 말의 일본 사회는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부재하는 사회였다는 것,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감 있는 대화를 회구하고 있던 사회였다는 것이다.

1960년대 말의 일본은 이미 미국에 다음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결과, 일본인은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게는 되었으나, 서로 간의 인간관계는 대화 부재의 공허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인식이 『1973년의 편발』의 모두 부분에는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과 관련하여 “무라카미 하루키는 1970년 전후의 경험에 의해 고도성장경제의 성공에 의한 ‘풍요로움’과 맞바꾸어 그 때까지의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던 인간의 관계가 송두리째 해체되어 버린 것에 자각적이었을 것이다.”<sup>7)</sup>라는 구로코 가즈오의 견해는 수긍할 만하다.

그런데 내레이터 ‘나’는 10여 년 전에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 ‘토성에서 태어난 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금성에서 태어난 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특히 인상에 남은 이야기로 기술하고 있다.

이제 이들 이야기의 분석에 앞서 이에 대한 국내 평론가의 언급을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문학평론가 권택영은, 토성과 금성을 주인공 ‘나’의 대학시절의 두 모습으로 파악하고<sup>8)</sup>, “혁명을 외쳤지만,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학생운동과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죽음으로 떠나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기억들은

7) 黒古一夫(2007), 앞의 책, pp.49-50

8) 권택영(2012) 작품 해설 - 한없는 허무 속 불빛 같은 하루키 문학, 무라카미 하루키 작, 윤성원 역 『1973년의 편발』 문학사상사 p.225

그의 과거지만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다.”<sup>9)</sup>라고 지적한다. 이 견해는 부분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즉, 사랑했던 여자를 잃은 슬픔이 내레이터 ‘나’에게 남아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내레이터 ‘나’는 학생운동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토성과 금성을 내레이터 ‘나’의 대학시절의 두 모습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토성에서 태어난 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금성에서 태어난 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의 주안점은 그것이 세계관과 연결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이야기의 의미하는 바를 천착해 보기로 한다.

『1973년의 핀볼』에서 내레이터 ‘나’는 ‘토성에서 태어난 이’와의 대화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금성에서 태어난 이’와의 대화 내용은 나중에 소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순서에 따라 ‘토성에서 태어난 이’와의 대화 내용을 먼저 분석하기로 한다.

“왜 모두 떠나지 않는 거야?” 나는 그렇게 물어 봤다.

“더 살기 좋은 별이 그 밖에도 있을 텐데.”

“모르겠어. 아마 태어난 별이기 때문일 거야. 그, 그런 거지. 나도 대학 을 나오면 토성에 돌아간다. 그리고 후, 훌륭한 나라를 만든다. 허, 허, 혁명이다.” (pp.6-7)

상기 인용에서 내레이터 ‘나’가 왜 모두 토성을 떠나가지 않느냐고 ‘토성에서 태어난 이’에게 묻고 있는 것은 그에 앞서 ‘토성에서 태어난 이’가 토성의 물리적 약조건을 “거기는 몹시도 추워.”(p.5), “게다가 인력(引力)이 아주 세거든”(p.6), “태, 태양도 아주 작아. 홈 베이스 위에 놓아 둔 여름 밀감을 외야에서 바라보는 것 정도로 작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두운 거야.”(p.6)라고 설명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토성에서 태어난 이’는 토성에서의 삶이 엄청난 추위와 강한 인력, 어두움이라는 물리적 환경 하의 척박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상기 인용에 있어 주목되는 것은 ‘토성에서 태어난 이’가 보여주는 사고(思考)이다. ‘토성에서 태어난 이’는 대학을 졸업하면 토성에 돌아가 훌륭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는 토성이 비록 척박한 물리적 환경에

9) 위의 책, p.225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 ‘토성에서 태어난 이’는 인간의 삶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성을 갖는 것은 물리적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 행위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토성이 가지는 신화적 상징성을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토성은 영어로는 새턴(Saturn)이라고 하며 이는 로마 신화의 사투르누스(Saturnus)에서 온 말이다. 사투르누스는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Cronos)에 해당한다. 크로노스는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Uranos)와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Gaia)와의 사이에서 막내아들로 태어난 신으로 우라노스를 내쫓고 그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후일 자신의 막내아들인 제우스(Zeus)에게 내쫓기게 된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내쫓고 신들 중에서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였으나, 결국은 자신의 아들인 제우스에게 그 권력을 빼앗기는 비운을 맛보게 된 그야말로 신들의 권력 쟁탈의 소용돌이의 가장 중심에 있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토성에서 태어난 이’는, 인간의 삶은 정치적 변혁을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인데, 이와 같이 정치권력의 문제를 삶의 중심에 놓는 토성인의 이미지는 크로노스(사투르누스)의 권력 쟁탈의 이미지에 그대로 잇달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성에서 태어난 이’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세계관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된다. ‘토성에서 태어난 이’의 이야기는, 세계를 정치권력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최고의 동력은 바로 다름 아닌 정치권력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토성에서 태어난 이’의 이야기의 기저(基底)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성에서 태어난 이’와의 대화의 함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을 보기로 한다.

“설령 오늘 누가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

금성에서 태어난 차분한 사나이는 그렇게 말했다.

“우리들은 그 뭇만큼 살아 있는 동안에 사랑해 두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꿈 말이지.”

(중략)

“정말로 그렇게 잘 될까?”라고 나는 물어 보았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하고 그는 말했다. “금성은 슬픔에 파묻힐 거야.”(p.25)

상기 인용의 ‘금성에서 태어난 이’와 ‘나’와의 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금성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상기 인용에 앞서 금성인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금성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친다. 모든 금성인은 모든 금성인을 사랑하고 있다.”(p.25)라고 한다.

그런데 금성은 영어로는 비너스(Venus)라고 하며 이는 로마 신화의 베누스(Venus)에서 온 말이다. 베누스는 사랑과 미(美)와 풍요의 여신이며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Aphrodite)에 해당한다. 『1973년의 핀볼』에서 금성인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베누스)의 상징성과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조형(造型)된 것으로 보인다.

상기 인용의 ‘금성에서 태어난 이’와의 대화에서는 하나의 세계관을 읽어낼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야말로 생(生)의 기쁨이며 사랑이 사라진 세상은 슬픔 그 자체라는 사고이다. 상기 인용 속의 금성인은 세상을 사랑의 틀로 바라보며 오직 사랑만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들의 삶에 가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973년의 핀볼』의 내레이터 ‘나’가 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성에서 태어난 이’의 이야기와 ‘금성에서 태어난 이’의 이야기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곧 ‘세계를 정치권력의 틀로 바라보는 세계관’과 ‘세계를 사랑의 틀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널리 통용되었던 세계관이라고 ‘나’가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고독’과 시대 인식

앞 장에서는 내레이터 ‘나’가 ‘금성에서 태어난 이’의 이야기와 ‘토성에서 태어난 이’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랑’의 세계관과 ‘정치권력’의 세계관을 보여 주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세계관 사이에서 ‘나’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우선 분명한 것은 ‘나’가 세계를 정치권력의 틀로 바라보는 세계관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내레이터 ‘나’가 ‘토성에서 태어난 이’에 대하여 “그는 어느 정치적인 그룹에 속해 있었으며, 그 그룹은 대학교의 9호관을 점거하고 있었다.”(p.5)고 말하고 있는 것이 ‘토성에서 태어난 이’가 1960년대 말 일본의 학생운동의 일원이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그룹에 대하여 내레이터 ‘나’는 “행동이 사상을 결정한다. 역(逆)은 불가(不可)”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다. 무엇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도 가르쳐는 주지 않았다.”(p.5)라고 부연한다. ‘나’는 학생운동 그룹에 조소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바, 이로 부터 ‘나’가 1960년대 말의 학생운동 그룹의 정치 지향에 대하여도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내레이터 ‘나’는 1960년대 말의 학생운동 그룹의 정치 지향에 대하여 회의적일 뿐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표출하지도 않는다. ‘나’는 함께 생활하게 된 쌍둥이 자매에게 “세상에는 백이십만 개 정도의 대립되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야. 아니, 조금 더 많이 있을지도 몰라.”(p.44)라고 말한다. 부연하여 그는 쌍둥이 자매에게 “거의 그 누구하고도 친구 같은 건 될 수 없어”(p.44)라고 말하며 “그것이 나의 1970년대의 라이프스타일이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예언을 했고, 내가 확고히 했다.”(p.44)라고 기술한다.

이는 곧 ‘나’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사고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개인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적 입장이 개진되어 있다. 동시에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사고방식에 공감하는 이도 찾지 못한 채 친구도 없이 고독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인간 존재를 규정한 것에 대한 내레이터 ‘나’의 강한 자기 확신이다. ‘나’는 타인과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그 뿌리가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한다. 다양한 인간 군상(群像)의 영혼을 발견하고, 작품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도스토예프스키가 바로 인간의 근원적 고독을 발견한 선구적 문학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라는 시대는 고독한 개개인의 삶이 표면화하기 시작한 시기인데 ‘나’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 시기의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여실히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5)에서 소개하였듯이 1970년이라는 해에 주목하여 이 작품에 대하여 “주인공을 포함하는 청년들이 시대를 흐르는 공기를 공유함으로써 연대할 수 있었던 시대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립하여 살아가는 시대로 이행해 갔다고 하는 감정이 진하게 표출되고 있다.”<sup>10)</sup>고 하는 시바타 쇼지의 견해는 수긍할 만하다. 다만, 시바타의 견해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주인공인 내레이터 ‘나’의 시대 인식은 시바타가 말하는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나’의 시대인식은 세계관의 형태로 뿌리 깊게 내면화되었다는 점이다.

『1973년의 핀볼』의 내레이터 ‘나’는 1960년대적 세계관과 1970년대적 세계관을 대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1960년대적 세계관이란 ‘토성에서 태어난 이’에 의해 제시된 ‘정치권력’의 세계관과 ‘금성에서 태어난 이’에 의해 제시된 ‘사랑’의 세계관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1970년대적 세계관이란 이 세계 속의 존재는 모두 근원적으로 고독할 뿐이라는 ‘고독’의 세계관을 의미한다. 이렇게 1960년대적 세계관과 1970년대적 세계관을 대치시키면서 ‘사랑’의 세계관과 ‘정치권력’의 세계관은 1970년대의 시대 상황 하에서는 유효성을 갖지 못하는, 나이브한 세계관이라는 인식을 ‘나’는 내비치는 것이다.

『1973년의 핀볼』의 세계관은 1960년대적 세계관과 1970년대적 세계관의 대비 위에서 성립한다. 이 작품이 1960년대적 상황과는 결별을 한, 1970년대적 인 새로운 상황의 기반 위에서 이야기가 전개됨을 다음의 문장이 단적으로

10) 柴田勝二(2009), 앞의 책, p.52

드러내고 있다.

1969년 봄, 우리는 이렇게 스무 살이었다. 라운지는 새 구두를 신고, 새로운 강의 요강을 안고, 머리에 새로운 뇌수를 채워 넣은 신입생 때문에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우리들 옆에서는 시종일관 누군가가 누군가와 부딪히고는 서로불평을 터뜨리거나 서로 사과를 하고 있었다. (p.8)

주지하는 바대로 20세란 나이는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년기가 시작되는 나이이다. 상기 인용에 있어 우리들이란 내레이터 ‘나’와 그의 여자 친구인 나오코(直子)를 가리킨다. 1969년이란 해에 ‘나’와 나오코가 성년을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1969년이 가지는 의미이다.

앞 장에서 ‘토성에서 태어난 이’의 이야기를 분석할 때, ‘토성에서 태어난 이’와 내레이터 ‘나’가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한 시기는 1968년에서 1969년에 이르는 어느 시기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1960년대 말의 일본의 학생운동은 1969년 1월, 야스다강당(安田講堂)을 점거하였던 도쿄대(東京大)의 학생 데모대가 경찰 기동대에 의해 진압된 뒤 급속히 사그라지게 된다. 1969년의 신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학생운동의 열기는 식고 새로운 대학가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 점에서 1969년이라는 해는 197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예고가 상기 인용에서는 ‘새 구두를 신고, 새로운 강의요강을 안고, 머리에 새로운 뇌수를 채워 넣은 신입생’의 이미지와 중첩되어 표현되었다.

『1973년의 편볼』의 첫 장은 이 작품의 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타이틀이 「1969-1973 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작품의 주된 시간적 배경이 1969년에서 1973년에 이르는 시기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토성에서 태어난 이’의 이야기와 ‘금성에서 태어난 이’의 이야기 등 1969년 이전의 시기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되기도 하나, 이는 1969년에서 1973년에 이르는 시기의 이야기가 가지는 특색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4. 개성의 상실과 인간의 기계 부품화

『1973년의 편본』에서 1970년대란 1960년대와는 변별되는 새로운 삶의 조건에 놓인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조건은 이 작품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내레이터 ‘나’ 앞에 일면식도 없는 쌍둥이 자매가 나타나 함께 살게 된 상황을 통하여 그려지고 있다. 다음을 보기로 한다.

왜 내 방에서 살게 되었는지, 언제까지 있을 생각인지, 무엇보다도 너희는 누군지. 나이는? 출생지는? …… 나는 뭐 하나 묻지 않았다. 그녀들도 말하지 않았다.(p.42)

이 작품에서 내레이터 ‘나’는 어느 일요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 옆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쌍둥이 자매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후 내레이터 ‘나’와 쌍둥이 자매가 함께 생활하게 된다. ‘나’와 쌍둥이 자매의 만남, 그리고 이들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이 작품에서 쌍둥이 자매라는 존재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1970년대의 인간의 삶의 단면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설정인 것으로 보인다.

‘나’는 쌍둥이 자매에게 나이, 출생지를 포함하여 그녀들에 관한 정보를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이는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이 그녀들을 이해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나’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그녀들과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나’의 생각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나’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상기 인용 부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나’가 쌍둥이 자매가 어째서 자신의 방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쌍둥이 자매는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 함께 살게 되었고, 나중에는 ‘나’를 떠나 원래 그녀들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설정이 되어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그녀들이 내레이터 ‘나’의 방에서 살게 된 것은, 인간이 이 지상에 태어나 삶을 영위하게 된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녀들이 자신의 방에서 살게 된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 필요가 없다고 ‘나’가 생각함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나’가 인간의 존재 목적, 바꿔 말하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다 할 자기 나름의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1973년의 핀볼』은 쌍둥이 자매를 등장시킴으로써 1970년대의 인간의 삶이란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삶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작품에서는 쌍둥이 자매의 등장을 통하여 1970년대의 각 개인은 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이야기한다. 다음을 보기로 한다.

물론 쌍둥이 자매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 어느 한 가지도 몰랐다. 얼굴도 목소리도 헤어스타일도 모든 게 다 똑같고 게다가 사마귀도 반점도 없다고 하는 데에는 정말 두 손 들었다. 완벽한 복제다. (중략)

다만, 그녀들 두 사람은 지극히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고, 내가 그녀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는 엄청나게 놀라고, 그리고 화를 내기까지 했다.

“전혀 다르지 않나?”

“완전히 딴 사람이야.”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어깨를 움츠렸다.

(pp.33-34)

쌍둥이의 용모가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의 쌍둥이를 도무지 구별하지 못하지만, 정작 쌍둥이끼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서로가 다르다고 느끼곤 한다. 그런 점에서 상기 인용 부분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그러나 상기 인용 부분을, 쌍둥이 자매가 1970년대의 인간의 삶의 한 단면을 그리기 위해 조형되었다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쌍둥이 자매 등장의 보다 심도 있는 의미의 파악이 가능하다. 즉, 197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은 자신과 타인이 전혀 다른 존재라고 느낄지 모르나, 정작 그들의 삶은 마치 복제품과도 같이 이렇다 할 개성도 없는 삶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쌍둥이를 구별하기 위해 내레이터 ‘나’가 쌍둥이의 트레이너 셔츠에 찍어진 번호인 208과 209라는 숫자로 두 사람을 구분하는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내레이터 ‘나’는 이 숫자를 보고서 ““기계의 제조번호 같네.””(p.39)라고 말하며 다시 ““즉 말이지, 너희들 같은 사람이 몇 명이고 있어서 말이야. 그 넘버 208과 넘버 209라는 애기지.””(p.40)라고 부연한다.

쌍둥이 자매가 넘버 208과 209로 내레이터 ‘나’에게 간주되는 데 대하여 구로코 가즈오는 “수치=기호는 인간의 사물화 현상(事物化現象)의 한 극단

화”<sup>11)</sup>, “고도선진국의 관리시스템을 상징하는 것이 인간의 기호화”<sup>12)</sup>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된다. 『1973년의 핀볼』에는 1970년대라는 시대에 개개인의 개성은 상실되고, 인간은 거대한 사회 속의 일련의 제조품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회 진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진단과 관련하여 내레이터 ‘나’와 쌍둥이 자매가 함께 생활하게 되어 벌어진 일 중에 이색적인 것은 어느 날 한 전화국 직원이 찾아와 배전반을 교체한 일이다. 특별히 배전반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나’에게 전화국 직원은 “배전반은 다 본사의 커다란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지요. 그런데 댁만이 모두와 다른 신호를 낸다고 하면 이걸 아주 곤란해져요. 알겠어요?”(pp.52-53)라고 배전반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내레이터 ‘나’는 “알았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일하는 문제네요.”(p.53)라고 말한다.

모든 배전반은 그 규격이 통일되어 중앙의 컴퓨터 관리 체계에 연결됨으로써 배전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1973년의 핀볼』 속의 배전반 교체의 에피소드도 이러한 상식에 의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이런 상식 수준의 메시지만을 전하지는 않는다. 이 에피소드는 보다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의 각 개인은, 각각의 배전반이 중앙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관리되듯이 거대한 사회시스템 하에서 개성을 상실한 채 왜소하게 마치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한 배전반이 여타의 다른 배전반과 다른 전기 신호를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듯이 1970년대의 각 개인은 사실상 여타의 개인과 다른 개성을 발현할 수 없게 된 사회 시스템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73년의 핀볼』에서 쌍둥이 자매와 내레이터 ‘나’는 우체국 직원이 새 것으로 교체하여 쓸모가 없게 된, 이전의 배전반을 저수지에서 장례식을 치러주기까지 한다. 여기서 새로 교체된 배전반이 중앙의 컴퓨터 관리 체계에 편입된 배전반인 데 대하여 이전의 배전반은 중앙의 컴퓨터 관리 체계와 무관하게 된 배전반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배전반은 1970년대 사회를 살아가는

11) 黒古一夫(2007), 앞의 책, p.47

12) 黒古一夫(2007), 위의 책, p.47

개인의 비유임은 위에서도 고찰하였거니와 중앙의 컴퓨터 관리 체계에 편입된 배전반이 고도산업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개성을 상실한 개인을 나타낸다면, 중앙의 컴퓨터 관리 체계에서 벗어난 이전의 배전반은 고도산업사회의 시스템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유지해가는 개인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쌍둥이 자매와 내레이터 ‘나’가 이전의 배전반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행위는 바로 그들이 고도산업사회의 시스템에 매몰되지 않고 개성을 유지하려는 개인을 지지하며, 자신들 또한 그와 같이 개성을 유지하면서 1970년대를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5. 일상성(日常性)과 무(無)

앞 장에서 1970년대의 고도산업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이 개성을 상실한 삶이라는 것, 그리고 내레이터 ‘나’는 개성을 유지하면서 1970년대를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렇다면, 내레이터 ‘나’의 실제의 삶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와 그의 친구는 1972년 봄에 번역 사무소를 차려 일하고 있다. 그들이 번역하는 번역물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는 예컨대 “볼 베어링의 내압성(耐壓性)에 관한 기사, 1972년도의 전미 칵테일 북, 윌리엄 슈타일런의 에세이에서 안전면도기의 설명문에 이르는 갖가지 문서”(p.36) 등을 번역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번역 업무의 성격, 근무 시간, 주말 시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생각컨대 덧붙일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 같은 수준의 번역의 좋은 점이었다. 왼손으로 동전을 잡는다. 딱하고 오른손에 그것을 포갠다. 왼손을 뺀다. 오른손에 동전이 남는다. 그뿐인 것이다.

10시에 사무소에 들어가 4시에 사무소를 나온다. 토요일에는 세 명이서 근처 디스크텍에 가서 J&B를 마시며 산타나를 흥내내는 밴드에 맞춰서 춤 췄다.(pp.36-37)

내레이터 ‘나’는 근무 시간은 짧으며, 토요일에는 번역 사무소의 동료들과 시간을 함께하며 보내고 있다. 번역 업무 자체에도 불만은 없는 듯이 보인다. 또한 “수입(收入)은 나쁘지가 않았다.”(p.37)고 밝히고 있어 수입 면에서도 불만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직장 생활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업무는 흔히 말하는 자아실현과 거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가 수행하고 있는 번역 업무는 왼손에 있는 동전을 오른손으로 옮겨 놓는 듯한 업무로 ‘나’에게 간주된다. 이는 마치 공장에서 기계화와 자동화의 시스템 하에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제품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을 연상시킨다. ‘나’의 업무는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정신적 성장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업무는 자신의 존재의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때때로 어제의 일이 작년의 일처럼 생각되고, 작년의 일이 어제의 일처럼 생각되었다. 심할 때에는 내년의 일이 어제의 일처럼 생각되기까지도 했다.”(p.38), “몇 달이나 몇 년이나 나는 단지 혼자서 깊은 풀(pool)의 밑바닥에 계속 주저앉아 있었다.”(p.39)는 대목을 통하여 ‘나’에게 있어 일상의 나날이 변화도 없이 계속되었고, ‘나’는 고독을 느끼면서 마치 심연에 가라앉은 듯한 심리 상태에 있었음이 드러난다.

‘나’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일상의 나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감각이다. 이 반복의 감각은 매일 매일이 새롭고 그 속에서 자신이 향상되어 간다는 느낌을 주는 것과는 대극(對極)에 있는, 지루함과 퇴보의 감각이다. 다음을 보기로 한다.

나는 하품을 길게 하고서 역의 벤치에 앉아 지긋지긋한 기분으로 담배 한 대를 피웠다. 아침에 일찌감치 아파트를 나설 때의 신선한 기분은 지금은 죄다 사라져 버렸다. 뭐든지 다 똑같은 일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끝없는 기시감(既視感), 반복될 때마다 나빠져 간다. (p.10)

상기 인용 부분에서 내레이터 ‘나’는 ‘지긋지긋한 기분’, ‘뭐든지 다 똑같은 일의 반복’, ‘끝없는 기시감’, ‘반복될 때마다 나빠져 간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지루함과 퇴보의 감각을 드러내고 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가 상기 인용의 역을 방문할 때에 “1973년 5월, 나는 홀로 그 역을 찾아갔다.”(p.10)고 그 방문의 시점(時點)이 1973년 5월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위에서 확인하였듯이 ‘나’와 ‘나’의 친구가 번역 사무소를 개업한 것은 1972년 봄의 시점이라는 점이다. 1972년 봄에 번역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되풀이의 감각을 호소하고 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나’의 지루함의 감각은 번역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1973년까지 계속하여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되풀이의 감각은 이 소설에서 주요등장인물의 한 명인 네즈미(鼠)에 계도 공통된다.

이 작품의 13장에는 ‘나’와 네즈미가 1970년에 제이스 바에서 맥주를 함께 마셔대곤 했던 친구 사이임이 드러난다. 이 소설의 내레이터는 “이것은 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네즈미라고 불리는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해 가을 ‘우리’는 700킬로미터나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다.”(p.27)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 해’란 물론 이 소설의 주요한 시간적 배경이 되는 1973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레이터 ‘나’가 이 작품을 자신의 이야기이자 네즈미의 이야기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작품 분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나’와 네즈미를 연결하는 이야기의 접점을 찾아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나’와 네즈미에 공히 드러나는 공통성은 바로 다름 이닌, 삶이 되풀이된다는 느낌이다. 다음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자와 만나기 시작하고부터 네즈미의 생활은 끝없는 일주일의 반복으로 변해 있었다. 날짜 감각이 전연 없다. 몇 월? 아마 10월일거야. 모르겠어……. 토요일에 여자와 만나고, 일요일에서 화요일까지의 사흘간 그 추억에 잠겼다.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의 절반을 다가올 주말의 계획에 충당했다. 그리고 수요일만이 행선지를 잃고, 공중에 떠서 방황한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다. 수요일……. (pp.102-103)

이 소설에 등장하는 네즈미와 그 연인과의 사귄은 결코 서로에게 있어 새로운 삶의 전개가 되지 못한다. 그 두 사람의 교제는 끝없는 반복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 버렸다. 상기 인용 부분의 바로 앞 부분에서 네즈미는 “이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1센티미터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신에게 지긋지긋했다.”(p.102)고 생각한다.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973년 5월 시점의 내레이터 ‘나’는 ‘지긋지긋한 기분’, ‘뭐든지 다 똑같은 일의 반복’, ‘끝없는 기시감’, ‘반복될 때마다 나빠져 간다는 지루함과 퇴보의 감각을 가지고 있거니와, 1973년 가을의 네즈미 또한 지루함과 퇴보의 감각을 고스란히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설 『1973년의 핀볼』은 1970년대의 일상성에 매몰되어 지루함과 퇴보의 감각을 맛보는 내레이터 ‘나’와 네즈미의 이야기라고 파악하면 그 뿐인 소설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나’와 네즈미는 일상의 생활이 지루함과 퇴보의 감각을 동반하며 되풀이된다는 인식을 공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인생행로를 선택한다. ‘나’와 네즈미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의 함의를 읽어 내는 것이야말로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성을 가진다.

이제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인생행로를 선택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네즈미의 경우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하자. 네즈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기로 한다. 그러한 선택의 배경을 보여주는 다음 대목을 보기로 하자.

“나는 25년을 살아오면서 뭐 하나 익히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p.108)

상기 인용은 모든 것이 끝없이 되풀이된다는 인식을 갖게 된 네즈미가 제이스 바의 제이에게 털어 놓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진단이다.

네즈미는 자신의 삶이 무엇 하나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었다고 느끼지도 않으며, 네즈미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긍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진단을 내린 네즈미는 결국은 제이에게 “인간은 모두 씩어간다”(p.161),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어떤 진보도 어떤 변화도 결국은 붕괴하는 과정에 불과하지 않은가.”(p.162), 그리고 “그런 식으로 희희낙락하며 무(無)를 향해 가려는 이들에게 조금만치의 애정도 호의도 가질 수가 없었어... 이 거리에도 말이야.”(p.162)라고 생각을 털어 놓고 자신이 살던 거리를 떠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는 인생에 대한 긍정도 역사에 대한 긍정도 찾아 볼 수 없으

며, 삶의 의미에 대한 부정과 인간 혐오의 감정만이 도드라질 뿐이다.

그런데 네즈미가 삶과 역사에 대하여 이러한 부정적 결론에 도달한 것에 대하여 내레이터 ‘나’의 경우는 어떠한가? 내레이터 ‘나’의 삶에 대한 인식의 도달점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작품 후반부에서의 핀볼 머신과의 조우의 장면이다.

1973년 가을 어느 날 내레이터 ‘나’는 자신이 한 때 빠져 있던 핀볼 머신인 스리 플리퍼의 스페이스십이 자신을 부르는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핀볼은 죽은 나오코를 대신하여 욕망의 대상인 오브제 포티아가 된 것”<sup>13)</sup> 이라고 권택영이 지적하고 있듯이, 또한 나카무라 미하루가 “‘그녀’=핀볼대는 나오코로 대표되는 상실된 ‘기원(起源)’의 구상화(具象化)에 다름아니다.”<sup>14)</sup>라고 말하고 있듯이 핀볼 머신인 스리 플리퍼의 스페이스십은 죽은 나오코의 자리를 차지한 존재였다.

나오코가 죽은 후 내레이터 ‘나’가 스리 플리퍼의 스페이스십에 빠져 지낸 것은 작품 15장에 나오듯이 1970년 겨울의 일이다. 그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1973년의 가을에 ‘나’가 스리 플리퍼의 스페이스십이 자신을 부르는 감각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나’는 핀볼 머신에 정통한 어느 스페인어 강사의 도움으로 결국 이 핀볼 머신과 조우하고 그녀와 대화를 나눈다. 다음을 보기로 한다.

그녀는 빙긋이 미소 지은 채, 잠시 공중으로 눈길을 보냈다.

뭔가 이상해. 모든 게 정말로 일어난 게 아닌 것 같아.

아니, 정말로 일어난 거야. 다만 사라져 버렸지.

힘들어?

아니, 하고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무(無)에서 생겨난 것이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갔다. 그뿐인 거야.(pp.187-188)

내레이터 ‘나’가 핀볼 머신을 찾아나서 게 된 계기는 핀볼 머신이 ‘나’를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적 상식으로 핀볼 머신이 인간을 부른다

13) 권택영(2012), 앞의 책, p.225

14) 中村三春(1999), 앞의 책, p.200

는 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대목의 해석을 위하여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즉, 핀볼 머신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바로 다른 아닌 내레이터 ‘나’의 의식의 심층에 핀볼 머신이라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관점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상기 인용의 핀볼 머신과 ‘나’의 대화는 바로 ‘나’의 자기성찰의 목소리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 자기성찰의 핵심은 모든 것이 ‘무’에서 ‘무’로 ‘원래의 장소’를 찾아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1973년의 핀볼』의 내레이터 ‘나’의 변화에 대하여 시바타 쇼지는 “60년대를 흐르고 있던 낭만적 정념(情念)을 단념하고 한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위치 지움 속에서 자기를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 대하여 그 존재를 남겨둔 채 사회와 타자와의 융화를 거부하고 있는 네즈미는 분명히 ‘나’의 전신적(前身的)인 분신(分身)이며 그 대조성 속에서 ‘나’가 현재의 생의 획득과 유지를 위하여 버리고 떠났음을 암시하고 있다.”<sup>15)</sup>고 주장한다. 시바타의 견해는, 네즈미를 1960년대로 퇴행하는 인물로, 그리고 내레이터 ‘나’를 1960년대를 초극(超克)하고 197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인물로 보는 것인 바, 네즈미와 ‘나’가 대조적 지향점을 향한다는 점에서 그 견해는 일면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견해는 내레이터 ‘나’를 1970년대라는 시대에 고착시켜 파악함으로써 내레이터 ‘나’의 정신적 도달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중요한 것은 내레이터 ‘나’가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세계관에 도달하였다는 점이다. 내레이터 ‘나’는 ‘무’로 향하는 과정을 ‘원래의 장소’를 되찾아 가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니와, 이는 1970년대 뿐 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수용 가능한 인식이다.

이는 ‘무’로 향하는 과정을 그저 붕괴의 관점으로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네즈미의 관점과는 변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내레이터 ‘나’는 ‘무’에서 ‘무’로 향하는 것을 우주적 질서로 보고 담담히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핀볼 머신과의 조우에서 이러한 인식에 이른 후 25장에서 보듯이 핀볼이 부르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다. 이는 바로 내레이터 ‘나’가 나오코를 잃은

15) 柴田勝二(2009), 앞의 책, pp.53-54

슬픔도 ‘무’에서 ‘무’로 향하는 것이 우주의 질서라는 인식 하에 치유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쌍둥이 자매가 “원래의 자리”(p.206)로 돌아간 다며 버스를 타고 떠나간 후 내레이터 ‘나’가 “모든 것이 다 맑게 비칠 만큼 11월의 조용한 일요일”(p.207)을 맞는 것은 바로 ‘무’에서 ‘무’로 향하는 것이 우주의 질서라는 인식에 의해 획득한 마음의 평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 6. 결론

이상에 걸쳐 무라카미 하루키의 『1973년의 핀볼』을 작품 속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73년의 핀볼』의 주인공인 내레이터 ‘나’는 1960년대적 세계관과 1970년대적 세계관을 대치시키고 있다. 이 작품에 있어서 1960년대적 세계관이란 ‘정치권력’의 세계관과 ‘사랑’의 세계관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1970년대적 세계관이란 이 세계 속의 존재는 모두 근원적으로 고독할 뿐이라는 ‘고독’의 세계관을 의미한다.

『1973년의 핀볼』에서 1970년대란 1960년대와는 변별되는 새로운 삶의 조건에 놓인 시대를 의미한다. 이 작품에 의하면, 1970년대의 인간은 고도산업사회에서 개성을 상실하고 기계부품처럼 왜소해진 인간이다. 그러나 내레이터 ‘나’는 고도산업사회의 시스템에 매몰되지 않고 개성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보여준다.

내레이터 ‘나’는 일상성(allteglichkeit)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인물이다. 그러한 자기 성찰의 결과로 내레이터 ‘나’는 ‘무(無)’에서 시작된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질서이며, 인간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마침내 도달하며, 이를 통하여 그의 여자 친구였던 나오코를 잃은 슬픔을 극복한다.

인간의 삶이 ‘무’에서 ‘무’로 향하는 우주적 질서 속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우주관·세계관으로 향하는 정신적 도정(道程)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작품

『1973년의 핀볼』인 것이다.

<參考文獻>

- 권택영(2012) 「작품 해설 - 한없는 허무 속 불빛 같은 하루키 문학」 무라카미 하루키 작, 윤성원 역 『1973년의 핀볼』 문학사상사 p.225
- 加藤典洋(2006) 『村上春樹 イエローページ1』 幻冬舎文庫 p.99
- 柄谷行人(1999) 「村上春樹의 〈風景〉 -『1973年のピンボール』-」 栗坪良樹·拓植光彦編 『村上春樹スタディーズ01』若草書房 p.117
- 黒古一夫(2007) 『村上春樹 喪失』의 物語から 轉換』의 物語へ』勉誠出版 p.47, pp.49-50, p.52
- 柴田勝二(2009) 『中上健次と村上春樹- 〈脱六〇年代〉 的世界のゆくえ』 東京外国語大学出版会 pp.52-54
- 中村三春(1999) 「『風の歌を聴け』『1973年のピンボール』『羊をめぐる冒険』『ダンス・ダンス・ダンス』四部作の世界-円環の損傷と回復-」 栗坪良樹·拓植光彦編 『村上春樹スタディーズ01』 若草書房 p.200
- 村上春樹(1980) 『1973年のピンボール』 講談社 pp.1-207

접 수 일: 0월 00일  
 심사완료: 0월 00일  
 게재결정: 0월 00일

<Abstract>

**Haruki Murakami's *Pinball, 1973***

-Focusing on the world view in this novel-

This article studies the world view shown in the novel *Pinball, 1973*, one of Murakami Haruki's early major works. Analysis of this novel gave me an insight into the following.

'I', the protagonist and narrator of *Pinball, 1973*, confronted the world view in the 1960s with that in the 1970s. In this novel, the world view in the 1960s represents a perspective focusing on 'political power' and 'love'. In the meantime, the world view in the 1970s is characterized by 'loneliness', that is, a perspective that everyone in this world is fundamentally lonely.

In *Pinball, 1973*, the 1970s is an era set under a new condition of life distinguished from the 1960s. According to the novel, people in the 1970s lived as if they became a part of a machine, losing their personality in a highly-industrialized society. However, 'I', the narrator, had a hope to lead a personalized life without losing himself to the system of highly-industrialized society.

'I' is a character who overcame allteglichkeit and reflected on his own life. Through such self-reflection, 'I' reached a conclusion that it was the order of universe and the life of people that things began from nothing and returned to nothing. And with this in mind, 'I' overcame the sadness of losing his girl friend Naoko.

*Pinball, 1973* shows this mental journey attaining a view of the universe and the world that people's life is in the universal order of coming from nothing and returning to nothing.